



광남일보





aT, 외식 등 농식품 고수요 데이터 확충
외국인 소비·반려동물 상품 등 18종 분석



합평 시골마을, 청정 예술 마을로 재탄생
산내리·잠월미술관, 청정전남 으뜸마을 협약



순천,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
시, 건물 임대인·입주기업과 상생협약 체결



KIA 최형우, 5월 MVP...최다·최고령 경신
통산 6번째 트로피에 이호준 기록 2년 넘어

조간 제7859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음력 5월 15일)

이재명 정부 ‘20조원+α’ 추정 추진

광주, AI·민생 예산 확보 ‘온힘’

강기정 시장 “AI 2단계·상품권·공공배달앱 지원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새정부 국정 과제 반영 최선

광주시가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추경)에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정부가 비상경제점검TF를 통해 2차 추경을 추진함에 따라 광주시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공공배달앱의 정부 지원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강기정 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2차 추경에 인공지능 전환(AIX) 실증밸리 조성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공공배달앱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긴급성을 이해한 매우 시의적절한 방향이자 조치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AIX실증밸리 조성사



센터 유치, AI창업캠프 등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광주시의 노력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담겨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되는 이 시점에 ‘여의도 집무실’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한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향후 계획과 전략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의 지원도 요구하기로 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골목 경기를 부양시킬 마중물 정책이다”며 “지방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국비 지원율을 70%로 높이고 연중 10% 할인율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633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내버스 재파업 첫날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재개한 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한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월요일 출근길 파업이라니...시민만 불편”

운행 횟수 줄고 배차 간격 늘어 불편 호소
택시·지하철 이용 ...사태 장기화 우려도
광주시, 비상대책 추진...버스운행률 88%

“파업 소식에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는데 큰 문제는 없네요.”

광주지역 버스노조가 9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졌다. 다만 배차 간격 조정 등으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 ▶관련기사 15면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버스정류장.

출근길 버스를 타기 위한 시민들은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과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연신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면서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가 이날 오전 파업 관련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정류장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기다림에 지쳐 스마트폰으로 호출 가능한 택시를 찾거나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서구 광천

동 유스퀘어 터미널 버스정류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점차 날이 밝아 오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당초 파업으로 인해 배차 간격 증가 등 큰 불편이 예상됐지만 이를 체감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

일부 시민들은 환승을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버스 배차 시간을 번갈아 확인하며 출근 시간을 확인했다.

이용객이 많은 버스 노선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길어진 배차 시간에 시민들이 물리면서 순식간에 ‘만원버스’가 됐다.

직장인 정진성씨(29)는 “버스가 파업한다는 소식에 평소 출근 시간보다 30여분 일찍 나왔다. 배차 간격이 늘어난 것 빼고는 큰 불편함을 못 느꼈다”며 “다만 파업하는 분들의 입장이겠지만 이로 인해 시민들이 희생되는 것

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사도 버스 파업 소식에 평소보다 붐볐다.

이날 오전 상무역에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 혼잡을 우려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일부 시민들은 서두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벽면에 붙은 지하철 운행시간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을 주시했다.

시민들은 ‘진짜로 하네. 어쩐지 평소보다 사람이 많더라’,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거야’ 등의 대화를 하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다만 노사 갈등이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에 버스운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있다.

한편, 광주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기존에 운행하던 1000여대 시내버스 중 887대를 투입, 약 88% 수준의 버스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다.

97개 노선 중 51개 노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 중이고 46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

또 지하철을 12회 증편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 7대 지역공약 실현돼야”

기본사회 실현·국가균형발전·인구 대전환 등 노력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가 새 정부와 함께 ‘기본사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인구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선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남 7대 지역공약의 실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이제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시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진짜 성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분열을 넘어 모두가 대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며 통합과 상생의 국가 비전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국정방향에 맞춰 ‘K-이니셔티브’ 시대를 힘차



게 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남형 기본소득과 햇빛·바람연금 등 에너지기본소득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글로벌 AI 기업 유치와 ‘솔라시도 AI 수퍼 데이터 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출생기본수당, 만원주택, 333 프로젝트 등 인구 대전환 전략과 함께,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서해안 철도, 남해안 선사인웨이 등 초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방에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조성을 통해 전남을 세계인이 찾는 K-관광거점으로 키우고, 국립의과대학 설립,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등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모든 과제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전남 7대 지역공약에 담겨 있다”며 “국정과제 반영과 제도 개선, 재정적 뒷받침 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태양·바다·호수를 품은 ‘관광레저, 에너지산업’의 최적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Dynamic
레저, 스포츠
젊음과 역동성



Energy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Joy
정원, 리조트, 수변
즐거움과 자유로움



Wealth
건강, 먹거리, 위케이션
풍요와 여유

구성지구
정원, 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삼호지구
골프산업 중심의
관광레저

삼포지구
모터스포츠,
자율주행 모빌리티

